

2022 완주탐사 프로젝트

예술가 8인이 발견한 고산의 예술적인 장소들

완주탐사 프로젝트 함께하는 사람들

주최 | 완주문화재단, 서울프린지네트워크

협력 |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마주협동조합, 복합문화지구 누에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 상임이사 이상덕, 사무국장 송은정, 예술진흥팀 장시형, 김윤하

서울프린지네트워크 | 김세연, 류혜리, 배수용, 백교회, 성수연, 이은주, 조영아, 최수연

기술지원 | 정상현

사진 | 미디어공동체 완두콩 협동조합

영상 | 박채원

글과 그림 기록 | 기대

완주탐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고산미소시장 상인회 이효진 매니저, 고산초 6학년 유현준, 이경인, 박지윤과 하하,
김정환 문화이장, 고산청년공간, 청춘방앗간, 누에 게스트하우스 슝 양정애, 이경순,
진금용, 아리송 협동조합 배경화 대표, 림보책방

CONTENTS

I

About 완주탐사프로젝트

II

Team Project 팀별 프로젝트

01 망각의 시간 - 김민경, 여은희

02 이었으면 - 움사(UMSA)

03 어느 개구리의 노래 - 인형꾼 배시시

04 돛가비 숨박질 - 임기택과

05 지구에서 온 소리 - 장효정

06 따뜻하고 편안한, 혹은 쓸쓸한 가을 노래 - 정은지

III

Process 완주탐사프로젝트 과정

IV

Epilogue 프로젝트를 마치며

I

About

완주탐사프로젝트

만나고,

탐사하고,

전환하라!

어느날 고산 골목골목을 다니는 낯선 사람들이 있었다. 고산 읍내를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보며, 바닥에 돌아난 풀, 비어있는 집, 문 닫은 주유소,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들을 프레임에 담는 이들의 행렬이 있다. 고산에 처음 와보는 이들, 고산이 좋아서 다시 찾은 이들, 고산에 살지만 고산을 새롭게 보려는 이들이다.

완주탐사프로젝트는 완주 예술가들과 서울 예술가들이 함께 만나 고산의 일상적인 장소들을 예술가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그 쓰임을 전환해보는 프로젝트이다. 고산초등학생들의 등굣길, 세심정과 만경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탐사길을 따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았던 공간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순간과 경험을 만들어나갔다.

예술가들은 인형을 만들거나 실을 엮어내기도하고 소리를 만들거나 몸을 움직이는 등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활동을 해왔다. 고산에서는 두 차례의 캠프를 통해 고산답사를 진행했고, 예술가의 시선으로 고산을 낯설게보는 작업을 진행했다. 우리의 일상적 공간들을, 또는 새로운 공간들을 다시 보게 하는 전환을 시도했다.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지니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어쩌면 늘 마주하는 ‘완주’이기에 익숙해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예술가들의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자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했다.



Team Project

예술가 8인이 발견한 고산의
예술적인 장소들

- 01 망각의 시간 - 김민경, 여은희
- 02 이었으면 - 움사(UMSA)
- 03 어느 개구리의 노래 - 인형꾼 배시시
- 04 돛가비 숨박질 - 임기택과
- 05 지구에서 온 소리 - 장효정
- 06 따뜻하고 편안한, 혹은 쓸쓸한 가을 노래 - 정은지

다시 울려 퍼진

이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사건

죽은 시간 소리 사건

슬프지만 가만히 있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다

김민경 여은희



너무 쉽게 잊혀지는 인간 포함 살아있는 생명체의 죽음을 기억하자

생명 · 피 · 혈관

부은원단으로 나무와 피아노를

감사는 행위를 통해 잊혀진 죽음을 다시 떠올리자

망각의 시간

PROJECT
01

김민경, 여은희
귀국의 이야기



#작가의 기획노트

'상실에 대한 메타포'를 나타내는 이번 작업은 부당하게 소멸되는 생명과 쉽게 망각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함으로써 애도와 각성을 담아내고자 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소리, 물건, 감정, 기억'들은 피아노 즉흥연주가 되고, '벽이 없는 공간에 놓인 소리와 실'은 피아노와 피아노 주변, 만경강변의 나무들을 휘감은 붉은 천이 되었다. 피아노와 나무를 연결하며 천을 길게 늘어뜨리기도 하고 묶거나 감기도 하였다. 붉은 천을 사용한 이유는 '소리와 빛,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



고산천 옆 공연공간에 피아노와 작품을 설치한 모습

작가소개

김민경

작곡가 김민경은 비엔나 국립음악대학을 작곡 및 전자음악을 전공하며 심사위원 만장일치의 최고점으로 졸업하고, 파리고등국립음악원(CNSM)의 교환학생으로 발탁되어 수학하였다. 귀국 후 대학에서 강사를 역임하며 동시에 다수의 단체와 협업을 통한 무용음악 및 설치음악을 작곡하였으며, 조수미, 리처드 용재 오닐 등 클래식 음악가들의 음반 및 공연분야, 그리고 김종학프로덕션의 "베토벤 바이러스", KBS FM "생생클래식" 등의 방송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은희

타피스트리 미술가인 여은희는 전라북도미술대전 초대작가이다. 전주한지조형협회 감사, 전주공예품전시관 운영위원을 역임하며 동시에 다수의 개인전을 이어오고 있다. '서로 다른 (색)실을 통해 조형언어를 구성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 방법을 통해 예술적 공통성을 구성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제22회 익산한국공예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장소 동라가든 맞은편 만경강변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64)

일시 11월 5일(토) 17:00-17:10 [김민경]

11월 5일(토)~6일(일) 10:00-18:00 [여은희]

#프로젝트 스케치

완주탐사캠프가 시작되던 날 이른 오전부터 가을빛으로 완전히 뒤덮인 만경강변의 나무에 붉은 천이 하나, 둘 감겼다. 두 작가가 이야기하는 망각의 시간은 망각의 소리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속에서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의 부당하고 슬픈 죽음은 뉴스를 통해 보도되기는 하지만 쉽게 잊혀 사라져버린다. 여은희 작가는 그 사라지는 소리를, 안쓰러운 생명의 죽음을 되새기고자 이번 설치작업을 진행했다. 생명, 피, 혈관을 의미하는 붉은 천은 나무와 나뭇가지 사이사이를 메우며, 피아노로 연결된다. 한 겹, 두 겹 덧대어지는 붉은 천이 만경강변의 공기와 피아노 선율을 감싸주며 어느 날의 무모한 죽음을 떠올리게 한다.

김민경 작곡가는 연주 시작 전 이태원 참사와 가까운 가족의 죽음 이야기로 운을 뗐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어느 날들의 사건이 붉은 천 위에서 '소리'로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음으로써 의미가 달라지는 것, 그 중 '부정성'에 집중하며, 아프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무력함을 이야기했다. 물이 흐르는 곳, 사실상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설치된 피아노는 강렬하고 슬픈 붉은 빛의 소리로 만경강변을 채웠고, 그 순간의 감각을 온전히 전달하는 피아노 위의 손, 페달을 밟는 발은 무척이나 섬세했고, 미세하게 떨렸다.

이태원 참사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두 예술가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쉽게 사라져버린 무모한 죽음을, 있어선안될 일들을 이야기했고,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어느 날의 죽음을 떠올렸다. 관객으로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행여나 무섭진 않았을까 걱정하며, 우는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따뜻한 멘트로 프로젝트는 끝났다.



공연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피아노를 쳐보기도 하며 함께하는 모습

#결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

'시간이 지나도 퇴색하지 않는 감정들, 기억나지 않는 뚜렷한 상처들, 죽음으로 옮겨진 감정의 전가에 대해서 강렬하게 느껴지는 색과 소리지만 사실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것 외에 견뎌내는 방법이 달리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고산천 옆 공연공간에 피아노와 작품을 설치한 모습

PROJECT 02



소행이 고산 세심정에서 느낀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해내고 있다.

이였으면

움사(UMSA)

#작가의 기획노트

즉흥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촉과 분위기, 직감을 믿는 경우가 많다. 좋으면 좋은 거, 싫으면 싫은 거. 고산을 처음 왔을 때 첫 인상은 '너무 좋다' 여러 답사 장소가 거치면서 이 동네가 주는 분위기는 편안하고 안락했다. 즉흥을 위해서 무언가 준비를 하고 긴장해야 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표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마음. 우리가 고른 공간 세심정은 마음을 청정하게 씻는다는 의미가 와닿았다. 정자와 대나무 숲, 그 앞에 있는 나무 한그루. 올해 작업하고 쌓아온 맥락에서 이어지고 만들어진 지점이 보였다.

#프로젝트 스케치

움사라는 이름의 뜻은 움직임과 사운드라는 뜻이다. 이름의 뜻 그대로 한 명은 움직이고 한 명은 사운드를 즉흥으로 만들어 내어 공연한다. 이번 캠프에서는 세심정과 그 뒤의 대나무숲에서 즉흥 무대를 펼쳤다. 정자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손바닥으로 두드려 소리를 내기도 하고, 낙엽을 손에 손으로 건네며 관객들의 반응을 유도하기도 했다. 관객을 향해 보내는 매혹적인 눈빛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빠져들고 말았다. 그 시선과 그 몸짓에 그 자리의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다. 움직이는 예술가를 따라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쫓르르 앞기도 하고, 낙엽을 연거푸 던지며 공연에 한껏 녹아든 모습이었다.



움사(UMSA)팀의 즉흥예술을 관람하고 있는 관객들의 모습



세심정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즉석에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지킬의 모습



#결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

#우연이든 운명이든 이 곳의 공간과 사람들과 우리의 이야기가 이어져서, 바라든 모습이든 아니든 그저 '이였으면'.

작가소개

움사 UMSA

한 명의 움직임과 한 명의 사운드가 만났다는 의미인 움사는 소행(서소행)과 지킬(이지훈)이 의기투합하여 함께 만든 팀이다. 찰나의 순간을 잘 느끼고 느끼는 것 그대로를 표현하는 즉흥예술을 진행하고 있다.

장소 세심정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55-12)

일시 11월 5일(토)~6일(일)

15:00-15:40



PROJECT 03

어느 개구리의 노래

인형꾼 배시시



#작가의 기획노트

‘그 많던 개구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개구리를 처음 떠올린 것은 첫 번째 캠프에서부터였다. 고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이곳엔 분명 개구리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어쩐지 개구리는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완주 곳곳에서 멸종위기 2급인 금개구리가 발견된다는 기사와 함께 축제에서 팔리고 있는 개구리 튀김에 관한 글은 어떤 미묘한 감정에 휩싸이게 했다. 환경오염 등으로 지구를 떠나간 개구리들을 기리고, 남은 개구리들을 불러 모으는 ‘어느 개구리의 노래’를 통해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와 멸종위기종들의 생존에 대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퍼포먼스를 기획하게 되었다.



개구리와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

#프로젝트 스케치

고산성당 앞 낯설지만 친숙한 생명체가 보인다. 아, 개구리다. 아니 자세히 보니 개구리 탈을 쓴 작가다. 그는 무엇 때문에 개구리가 되기로 마음먹은걸까? 관객들은 사라진, 그리고 남은 개구리를 찾아 나서는 예술가를 따라 발걸음을 함께 했다. 커다란 개구리 탈을 쓴 예술가에게 “다른 개구리는 어디에 있어?”라고 묻기도 하고, “개구리들 중에 누가 제일 귀여워?”라고 장난 섞인 물음을 던지기도 했다. 개구리 인형을 안고 만경강 수변 생태공원을 이리저리 종종걸음으로 달려 나가는 예술가를 따라가겠다고, 엄마, 아빠의 손을 당기며 “어서 가자”라고 소리치는 아이도 있었다. ‘피리 부는 개구리’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인파는 많아졌다. 아이들은 먼저 달려 나가 개구리 인형을 찾기도 하고, 예술가의 손을 잡고 걸터다닐 정도로 공연을 즐기는 모양새였다. 개구리는 아이들과 금세 친구가 되었다. 고산 곳곳을 누비면서 다른 개구리 친구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개구리를 위한 노래를 연주하기도 했다. 작은 개구리 퍼펫들을 함께 배치해 앉아 쉬기도 하고, 함께 해주는 관객들에게 개구리 친구들을 찾는 업서를 주며 마을을 정처없이 떠돈다. 개구리의 탈을 쓴 작가는 아이들과 함께 고산 곳곳에 살고 있는 ‘개구리’를 찾아 헤매며 멸종위기종들의 생존에 대해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고산 곳곳을 함께 여정하는 개구리와 친구들



#결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고산을 배경으로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환경오염 문제와 멸종위기종들의 생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다.



작가소개

인형꾼 배시시

이미지와 이야기를 다양한 매체로 풀어내는 시각예술가 이희원의 1인 극단으로 퍼펫(puppet, 인형)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 작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입을 조금 벌리면서 소리 없이, 얽게 웃는 모양’이라는 뜻을 가진 ‘배시시’처럼 누구나 제한 없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예술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장소 고산성당 후문 - 세심정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7길 20),
고산미소시장 - 만경강수변생태공원
(고산면 읍내7길 20)*이동형 공연

일시 11월 5일(토) 16:00-16:30,

11월 6일(일) 13:00-13:30

작은 개구리 퍼펫들과 함께 앉아서 쉬면서 관객들에게 위한 노래를 연주하는 모습



PROJECT 04

임기택과
뚝가비 숨바꼭질



#작가의 기획노트

누가 뚝가비이고 무엇이 뚝가비일까? 뚝가비는 어디 숨었고 무엇을 숨겼을까?
굽이굽이 길을 따라 뚝가비를 찾아, 뚝가비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찾아보자!
완주군 고산면에 실제 거주 및 생활하고 있는 고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리서치하고 리서치한 내용을 이들과 함께 움직임 및 오브제, 오디오 등 다양한 방향의 예술 작업으로 창작했다. 창작의 결과물을 실제 생활하는 공간인 읍내리 957-2 골목 골목에 배치하여 관객이 이동하며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단순 배치를 통해 순차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골목의 구조를 활용, 관객의 자발적 동선 선택에 따라 다른 순서로 이야기를 보게 하고 같은 이야기지만 관객에 따라 다른 지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낙엽을 묵묵히 쓸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 임기택과 뚝가비



관객을 이끌며 고산 골목골목을 누비는 작가의 모습

#프로젝트 스케치

커다란 보호수 주변의 낙엽을 묵묵히 쓸고 있는 이가 있다. 다들 언제 시작하지하는 표정으로 주변을 연신 돌아보는데, 갑자기 빗자루를 들고 있던 이가 나무 뒤로 숨더니, 머리를 묶고, 옷을 갈아입고 나와 자기를 따라오라는 손짓을 시작한다. 마치 피리부는 사나이가 아이들을 이끌 듯 고산의 골목골목에서 임기택과의 숨바꼭질이 시작되었다. 바닥에 그려놓은 그림을 따라 아슬아슬하게 걷고 뛰는 작가를 따라 관객도 강충강충 뛰기도 하고, 벽에 손을 짚어보기도 하며 골목놀이를 함께 했다. 골목에 흐르던 작은 천에서 물을 퍼올려 관객들의 손마다 작은 컵을 쥐어주며, 물을 따라주기도, 그 물로 동그란 길을 그리며 발걸음을 이어갔다. 마지막 장소에선 기둥과 벽을 오가며 기대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노래를 부르며 다같이 숨바꼭질을 했다. 그러다 갑자기 술래는 사라지고, 빗자루 하나가 나타났다. 도깨비에 홀린 듯이 골목 어딘가에서 두리번거리는 우리만 남아있다.

작가소개
임기택과

“작게 움직이고 자주 바라봅니다.” 관계와 관계에서 파생되는 현상에 관심이 많은 작가는 움직임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작업자들과 공동창작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눈을 감아야 보이는>연출, <신기루> 연출 및 출연, <집집줍줍줍> 연출 및 출연, <지구생활자의 노래> 움직임 감독 및 출연하였다.

장소 바다이용원 옆 보호수 앞 -
에덴미용실 (완주군 고산로 129)
*이동형 공연

일시 11월 5일(토)~6일(일)
14:00-14:20

#결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

실제 완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고, 움직임이나 기타 다른 형태로 만드는 과정으로 되바꿈하면서 다시 완주에 재배치하였다. 익숙하기에 놓치고 사는 완주의 이야기에 귀기울여보기를 바랐다.



바닥에 그려놓은 그림에 따라 아슬아슬하게 걷고 뛰는 작가의 모습



글과 그림 기대



도깨비 소리를 찾는 도깨비 탐정 TF팀이 결정되어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PROJECT
05

지구에서 온 소리

장효정

#작가의 기획노트

완주의 고산은 한적한 듯 보여도 무수한 소리들이 흘러넘치는 곳이었다. 그 소리들이 고산이 흐를 수 있게 하는 힘인 듯 보였다. 만경강의 아름다움, 향교의 한적함을 넘어서는 '고산의 수다스러움'은 계속 해서 길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배우가 소리로만 출연하는 연극이다. 아두이노 스피커(센서 스피커)를 활용하여 관객이 일정 거리, 일정 시간 이상 장소에 머물면 그 곳에서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흘러나와 장소에 이야기를 보낸다. 그리고 관객들은 스피커가 있는 길들을 이어나가며 자신만의 소리 지도를 완성해본다.

립싱 | 종합판매장



#프로젝트 스케치

술래를 찾아 서성거리던 관객들에게 갑자기 방송이 들린다. 고산에서 들려오는 도깨비 소리를 찾는 도깨비 탐정 TF가 순식간에 꾸러졌다. 임명장을 받고, 도깨비 소리를 기록하는 도깨비 지도를 받아 고산 골목을 돌아다니며 도깨비의 흔적을 찾는 여정이 시작됐다.

새가 우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식당의 소리, 방망이로 두드리는 소리 등 우리 모두 숨을 죽이고 골목의 소리를 각자의 방법대로 기록했다. 도깨비 소리를 찾는 골목 탐사가 마치고, 각자 기록한 도깨비 소리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입에서 입으로, 소리에서 소리로 전해진 도깨비 소리는 모두 우리가 내는 소리였고, 우리 모두는 도깨비였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도깨비 탐험을 마친 우리들은 이제 고산의 소리를 전하고, 기록하는 도깨비가 되어 생명의 소리를 찾아나설 것이다.

#결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

갈래길로 이어지는 고산은 만경강 강줄기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이어진다. **舊와新**을 구분 짓지 않고 하나로 흐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고산면의 갈래길 사이로 새어나오는 수다들이 있다.



도깨비 소리를 찾아 완주 고산의 골목 곳곳을 탐사하고 있는 모습



도깨비 지도를 받아들고선 설명을 듣고 있는 아이의 모습

작가소개

장효정

극단52Hz 대표, 연출, 작가 1인 3역할을 한다. 장소에 이야기가 생기면 기억이 생긴다. 일상을 비일상으로라는 모토로 장소특정형 연극, 길 위에 이야기를 엮는 일을 하고 있다.

장소 에덴미용실 - 금성전자 골목길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11)

*이동형 공연

일시 11월 5일(토)~6일(일) 14:20-14:30

PROJECT
06

따뜻하고 편안한, 혹은 쓸쓸한 가을 노래

정은지



연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작가의 기획노트

고산지역 만경강에서 느낄수 있는 자연을 담은 바람과, 물소리 등이 시어로 담아 작곡한 곡과 귀촌해 살면서 만든 노래들을 연주하고자 한다. 윤동주 시로 만든 곡, 세월호 추모하며 만든 곡, 편안한 연주곡 등으로 구성한 이번 공연은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노래를 통해 관객이 잔디밭에서 편안하게 들으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프로젝트 스케치

가을의 햇살과 어울리는 선율로 완주탐사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린 정은지 작곡가는 '따뜻하고 편안한, 혹은 쓸쓸한 가을노래'라는 제목으로 자작곡 4곡, 연주곡 1곡, 가곡 2곡을 노래 부르고 연주했다. 완주탐사프로젝트의 출발선을 끊은 작곡가답게 첫 노래는 '안녕'이었다. 정은지 작곡가는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안녕'이라 말하며 노래를 시작했다. '함께 하고파 망설이다, 두려워 말고 안녕'이라는 가사는 애뜻한 상대를 향한 설레는 인사말 같다가도, 귀촌을 고민 하며 완주를 바라보는 정은지 작곡가의 마음으로 들리기도 했다. 가을 햇살을 뒤로, 빈백에 누워있는 잔디밭 위 관객을 잠들게 한 두 번째 노래는 '꿀잠 자장가'였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안부를 물으며 관객을 잠의 세계로 인도했다. 쿵쿵, 꿀잠 자러 가자며 마치는 '꿀잠 자장가'는 노곤한 햇살, 울긋불긋한 나무와 하나 되어 관객을 음악의 세계로 이끌었다. 마지막 자작곡 '모르겠어'는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불렀다. 단정한 목소리로 슬픔을 노래한 정은지 작곡가의 목소리에 더해진 애절한 첼로의 연주는 참사 당시에 우리가 느낀 무력함, 안타까움과 슬픔을 노래했다. 관객은 무대와 하나 되어 눈을 질끈 감거나, 떨어지는 눈물을 훔치며 각자의 방식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했다. 이토록 관객의 감정과 마음을 흔들어 놓은 정은지 작곡가의 무대는 자작 첼로 연주곡 'only pray', 첼로 연주곡 'You Raise me up', 가곡 '마중', '시간에 기대어, 자작곡 '바람이 불어'로 이어지며 따뜻하고 편안한, 혹은 쓸쓸한 가을을 선사했다.



고산지역 만경강을 배경으로 연주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잔디밭에 앉아 편안하게 쉬며 가을의 정취와 음악을 즐기고 있는 관객들



작가소개

정은지

고산으로 귀촌해서 가까이 본 자연의 모습을 가사에 언뜻언뜻 녹여내고, 지역생활에서 느끼는 일상의 감정을 담아 작곡한 곡을 연주하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이다. 어쿠스틱밴드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했으며, 최근 합창작곡과 편곡작업으로 영역을 확장해 즐겁게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소 완주미디어센터앞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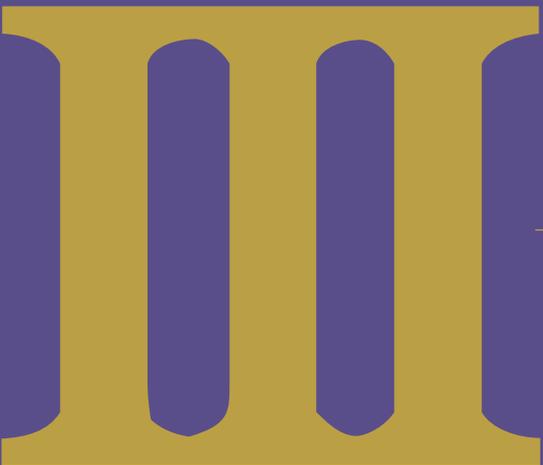
일시 2022년 11월 5일 (토)

13:00-13:40

#결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

완주로 귀촌해 살면서 본 고산 만경강에서 느낄 수 그 안에 다양한 감정들이 공존했다. 자연과 악기, 사람이 내는 소리가 한데로 모여 고산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그 안에서 느껴지는 따뜻하고 편안한, 혹은 쓸쓸한 가을 노래를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Process

완주탐사프로젝트
과정

추진 배경



2021 완주한달살기 사업에 참여한 서울프린지네트워크가 완주에서 지낸 3개월의 시간 동안 발견한 공간들을 기반으로 예술가들과 새로운 창작작업, 공간발굴, 활용하는 '완주탐사프로젝트' 제안



서울,수도권 예술가와 완주예술가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밀도높은 교류의 장을 연결하고, 완주만의 독립 예술, 새로운 창작작업, 실험적인 예술축제에 도전

사업 개요

사업명	완주탐사프로젝트
사업기간	2022. 03. ~2022. 12.
사업대상	완주 예술가, 프린지 예술가
진행장소	완주 고산 일대
진행방식	1차 여름캠프, 2차 자유캠프, 3차 가을 캠프 총 3회를 통한 교류, 네트워킹, 창작활동 지원
프로젝트 내용	완주문화재단과 서울프린지네트워크가 함께 기획한 완주탐사프로젝트는 예술가들의 교류와 네트워크의 장을 만들고, 그 결과물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기획된 예술축제 일상적 공간을 예술가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그 쓰임을 전환해보는 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원내용	활동비, 참여시 필요한 소정의 장비, 숙식제공, 홍보, 아카이빙 제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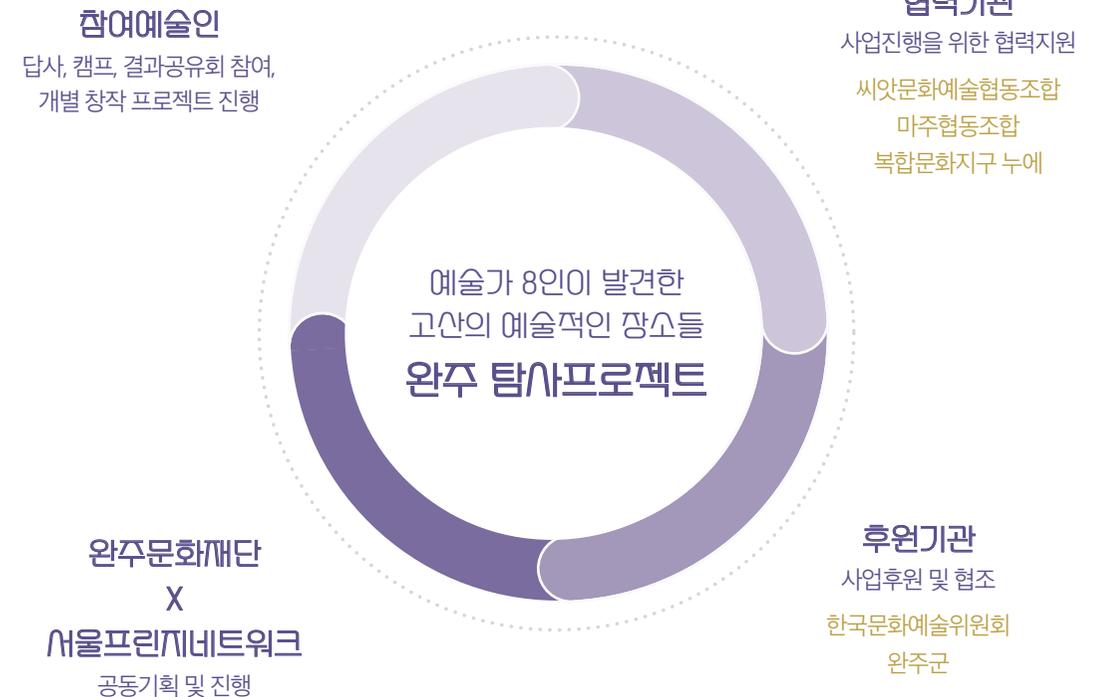
추진 방향

- 재단과 완주의 기획자, 프린지 기획자들의 만남의 장을 기반으로 완주예술인들의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2022년은 공간의 전환을 주제로 오랫동안 이러한 작업을 해온 서울프린지네트워크와 완주의 예술가들에게 익숙한 공간, 무대와 객석, 전시장과 관람객 등이 아닌 공간과 환경적 요소에 맞춰 새로운 고민, 해석을 지향, 기존의 형태, 쓰임, 활용에서 벗어나 예술가의 호흡을 넣음으로써 비일상적인 순간, 경험이 되는 장소특정적, 실험적인 프로젝트 지원
- 최소한의 공간 훼손, 소규모 장비와 전력사용 등 친환경 프로젝트 운영 시도

추진 과정



추진 체계



추진 일정

01 사전회의

- **진행기간** : 2022. 4월 ~ 11월 (9회)
- **진행방식** : 온라인 줌회의
- **참여** : 예술진흥팀,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마주협동조합
- **진행내용**
 - ① **운영방향** : 완주와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예술가의 교류 및 지속적인 교류 프로젝트의 기반 마련, 완주의 예술가들이 새로운 방식의 창작작업, 장소 특정적, 친환경 프로젝트의 가능성 마련
 - ② **완주 문화예술단체와의 협력** :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마주협동조합
 - ③ **프로젝트 아카이빙** : 사진, 영상 / 문학분야 예술가 협업을 통해 창작물형태의 프로젝트 기록 진행
 - ④ **완주탐사캠프 진행관련 실무회의** : 일정, 참여인원, 규모, 장소, 결과공유테이블 등



- **모집기간** : 2022. 8. 16.(화) ~ 8. 28.(일)
- **모집대상** : (완주) 완주에서 거주하며 활동하는 예술가 (서울및수도권) 서울프린지네트워크의 추천
- **지원조건**
 - ① **장소특정적 예술을 고민** : 무대 / 객석의 형식이 아닌 공간과 환경적 요소에 맞추어 새롭게 재해석,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예술가
 - ② **친환경지향** : 공간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의 작업, 소규모 장비, 전력사용 등
 - ③ **다양한 장르 환영** : 공연예술외에도 팝업북, 디지털아트 등



03 프로그램 진행

- 만나고, 탐사하고, 전환하라! 완주탐사캠프_고산편 진행
- 완주탐사캠프는 서울프린지네트워크가 완주한달살기에 참여하며 찾아낸 공간, 사람들, 스토리들을 기반으로 2022년, 예술가들과 함께 완주(고산)을 새롭게 발견, 탐사, 교류, 공유하는 3번의 캠프

① 1차 완주탐사 여름캠프

- **일시** : 2022. 9. 2(금) ~ 9. 3(토) / 1박 2일
- **장소** : 고산일대,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누에게스트하우스
- **참여** : 27명 (참여자 7팀, 협력단체 9명, 재단 5명, 주민가이드 6명)
- **내용** : 참여자 간 첫 만남으로 예술가로써 서로를 알아가고, 고산의 공간과 자연을 탐색하며, 영감을 떠올릴수 있는 캠프 진행
- 만나고, 탐사하고, 전환하라 사업 소개 및 일정 안내
- 고산일대 답사
 - ① 1일차(서울 프린지팀 가이드 : 이은주, 백교회)
 - 고산 터미널 → 폐 주유소 → 고산성당 → 고산향교 → 대나무숲 → 세심정 → 만경강변 → 완주놀자지역아동센터
 - ② 2일차
 - 가. 고산투어 - 문화이장(김정환 문화이장)
 - 만경강변(수생식물군락지, 둔치, 연꽃방죽, 오성교)
 - 나. 고산투어 - 고산미소시장(배경화 고산미소시장 상인회장)
 - 고산미소시장 → 흥흥 → 오손도손멜로디 → 미디어센터광장(정자, 카페, 산책길) → 림보책방
 - 다. 고산투어 - 고산초 학생(고산초 6학년 유현준, 박지윤, 이경인)
 - 고산초등학교 → 아파트 뒷길 → 성당 앞 공터 → 뉘시점 → 청춘방앗간
- 참여자 간 각자 프로젝트 공유 및 네트워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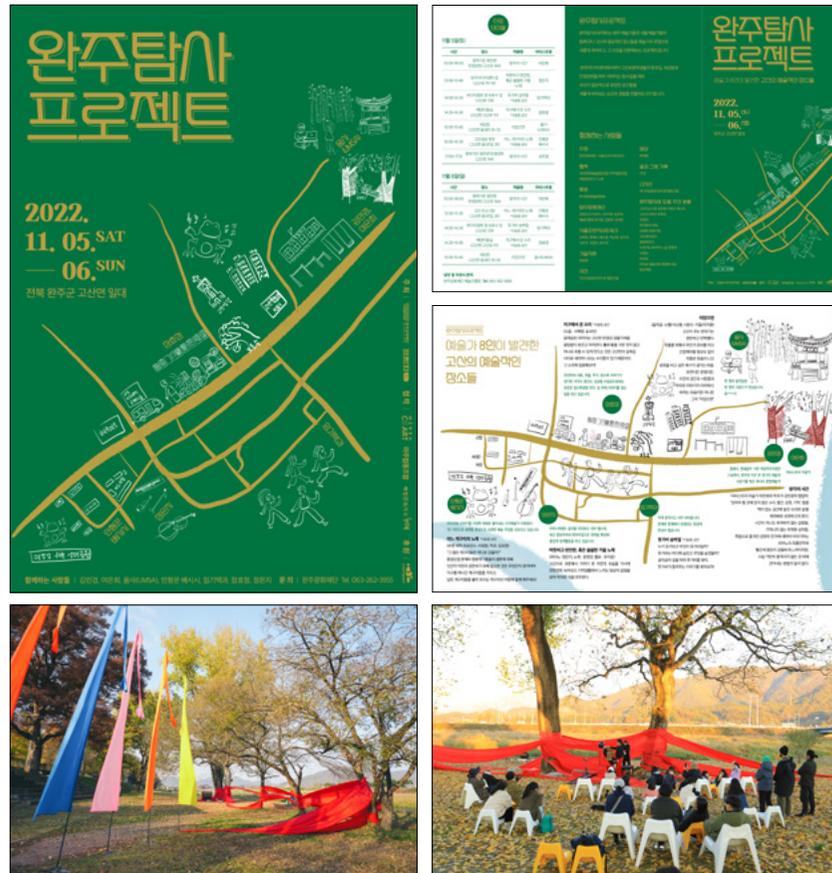


② 2차 완주탐사 자유캠프

- 일시 : 2022. 9 ~ 11월
- 장소 : 고산일대
- 참여 : 20여명 (참여자 9명, 서울프린지네트워크 8명,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1명, 마추협동조합 1명, 재단 3명)
- 내용 : 예술가들이 고산을 스스로 자유롭게 탐험하고 작품발표공간을 발굴 탐색, 공간에 맞는 작품제작을 하는 자율캠프

③ 3차 완주탐사 가을캠프

- 일시 : 2022. 11. 5.(토) ~ 6.(일)
- 장소 : 누에 게스트하우스, 고산일대
- 참여 : 총440여명 (참여자 8명, 서울프린지 9명,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3명, 마추협동조합 2명, 재단 6명 / 관객 415여명, 1일차 265여명, 2일차 150여명)
- 내용 : 1차 여름캠프와 2차 자유캠프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 새로운 예술의 형태를 경험할 수 있는 오픈캠프



04 결과공유

결과공유

- 일시 : 11월
- 대상 : 참여예술가, 기획자, 활동가, 단체
- 방식 : 관객설문조사(3차 캠프 진행시) / 참여예술가, 기획자 (서면 진행)
- 내용 : 프로젝트 참여소감 및 운영관련 의견수렴

IV

Epilogue

마치며

고맙습니다, 소중한고 따뜻한 마음들

서울에서 온 예술가와 완주에 거주하는 예술가, 총 8인의 예술가가 만경강변, 골목길, 만경강 수변 생태공원 등 6개의 공간에서 각각 1인극, 무용, 인형극, 즉흥퍼포먼스, 설치미술 등을 진행했다. 11월 5일과 6일, 양일간 고산 일대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는 어린아이를 동반한 시민들의 많은 관람이 이어졌다. 아이들은 웃으며 개구리 탈을 쓴 예술가를 따라가고, 어른들은 웃으며 그 뒤를 걸으며 도란도란 대화를 나눴다. 고산의 소리를 따라가며 도깨비를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하기도 했다. 진지할 때는 진지하게, 유쾌할 때는 유쾌하게 고산의 골목골목을 탐색하고 진행되는 공연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좋은 행사가 고산에서 열려 좋았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예술의 영역이라 참신했고, 아이들도 기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20대 여성 D

익숙했던 완주의 풍경들, 일상성을 깨는 순간이 좋았다.

완주문화재단 B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으면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30대 여성 C

작품을 준비하는 일정들이 촉박하게 진행되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었고, 다음에 기획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프린지네트워크 B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따스한 날씨에 고산 일대를 탐색하며 함께 걷고 웃으며 예술 공연 및 전시를 향유한 시간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완주문화재단 A

완주 예술가들에게는 완주와 고산을 새롭게 보는 계기를 서울 예술가들에게는 새로운 관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모든 예술가들에게 예술의 일상성에 대해 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프린지네트워크 C

재미있게 관람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0대 남학생 A

관객들이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아티스트들과 새로운 방식의 작품으로 교감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프린지네트워크 A

참여 연령대에 10세 이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참여하고 싶어했는데 아쉬웠어요.

고산시민 D

완주를 탐사하고 예술가의 시선으로 완주와 고산을 재해석하는 계기가 되어주었고, 스스로에게도 새로운 시도로 다가왔다. 뜻밖의 외부장소에서 설치미술 및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감상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느끼며 장소를 다시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예술가 여은희

익숙했던 고산의 곳곳을 공연자를 따라 다시 걸으며 사방치기, 물그림 그리기, 공놀이, 솜바꼭질 등의 놀이를 함께 참여하고 체험하면서 잊고지냈던 추억들이 방울방울 떠올랐습니다. 익숙해서 잊혀지는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던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관객 E

실내무대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기존 공연들의 공간에서 탈피해 고산의 다양한 공간을 공연의 장으로 발굴하고자 노력했던 거 같아요. 다행히도 많은 관객여러분들이 공연을 관람해주셨고, 특히 어린이들이 큰 호응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거리예술, 이동형 공연, 관객체험형 공연을 기획하여 완주예술 생태계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술가 임기택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품은 고산천변을 예술 향유의 장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역 일상에 예술적 숨을 불어넣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더불어 예술 그 자체의 이야기에 자연이 스스로 뿜어내는 힘이 더해져 대도시에 비교하여 문화소외지에 거주하는 관객들에게 더 깊이 예술의 감흥을 전달하는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 김민경

예술가들을 믿어주시고 지원 해주신 점이 제일 좋았습니다. 프린지 팀과 재단, 예술가가 서로 협업이 잘 되고 소통이 원활해 진행과 피드백이 잘 이루어진 것도 좋았습니다.

예술가 음사 팀

이번 완주탐사프로젝트가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예술가들의 시선으로 '공간'을 다시 바라보는 점이었습니다. 특정 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탐사하고 지역을 해석하는 것이 매우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실제 서울지역 참여 예술가들의 경우 '공간'을 이용한 작업을 하는 팀들로 이루어져 더욱 다채로운 프로젝트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유롭게 참여해주셨어요. 무엇보다 그 안에서 보내주신 응원과 긍정적인 반응들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술가 이희원

앞으로도 완주에서 더 많은 공연을 기대하겠습니다.

40대 여성 B

좋은 프로젝트에 참여할수 있어서 감사하고 뜻깊었습니다. 다만, 이런 프로젝트들이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해요. 그렇다면 완주 인디 음악인들이 노래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 예술인들과 교류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술가 정은지

2022 완주탐사 프로젝트

1판 1쇄 발행 2022년 12월 30일

1판 1쇄 인쇄 2022년 12월 30일

펴낸이 유희태

펴낸곳 완주문화재단

총괄 이상덕

책임 송은정

기획·진행 완주문화재단 예술진흥팀 장시형, 김윤하
서울프린지네트워크 김세연, 류혜리, 배수용,
백교회, 성수연, 이은주, 조영아, 최수연

디자인 미디어공동체 완두콩 협동조합

주소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연락처 063-262-3955

홈페이지 <https://www.wfac.or.kr/>